

고대 동아시아의 接境, 遼西

- 중국왕조, 유목세력, 고구려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동민**

목차

- I. 머리말
- II. 遼西의 공간적 모습
 - 1. 中原과의 교통이 불편한 공간
 - 2. 제종족의 거주 공간
- III. 遼西를 둘러싼 세세력의 동향
 - 1. 고구려와 돌궐 간 갈등
 - 2. 高寶寧 세력의 대두와 세세력 간 관계
- IV. 맺음말 - 세세력의 동향으로 본 遼西의 성격

I. 머리말

주지하듯이 고대 중국왕조와 高句麗는 주변 집단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아시아 주요 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양 왕조는 서로 인접하면서 외교를 통해 평화롭게 교섭하거나 때로는 전투와 전쟁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별이는 등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 왔다.

양 왕조의 영역은 서로 간의 역학관계, 당대의 국제 정세 등에 따라 변화할 께어 왔다. 특히 고구려가 4세기 후반 경 廣開土大王대(재위 391-412)에 後燕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遼東을 완전히 복속시킨 후¹⁾ 668년 唐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양 왕조 간 접경이 되었던 지역은 바로 遼西였다.

요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그리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청동기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중국왕조와 고구려 그리고 북아시아 초원세력 간 접경이었던 점은 중시되면서 요서를 둘러싼 세세력의 동향이나 국제 정세의 변동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당시 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뒤 흔들었던 고구려-隋 전쟁의 주요 발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²⁾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먼저 요서의 공간적 특징과 성격에 개괄한 후, 동아시아의 요지로 부상하였던 6세기 중·후반 대³⁾의 요서를 둘러싸고 있던 주요 세력, 즉 중국왕조, 북아시아 초원의 유목세력 그리고 고구려 등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당시 요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공석구,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9, 10쪽.

2)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이정민, 『고구려-수 전쟁 :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大戰』, 주류성, 2018, 10쪽 각주 6)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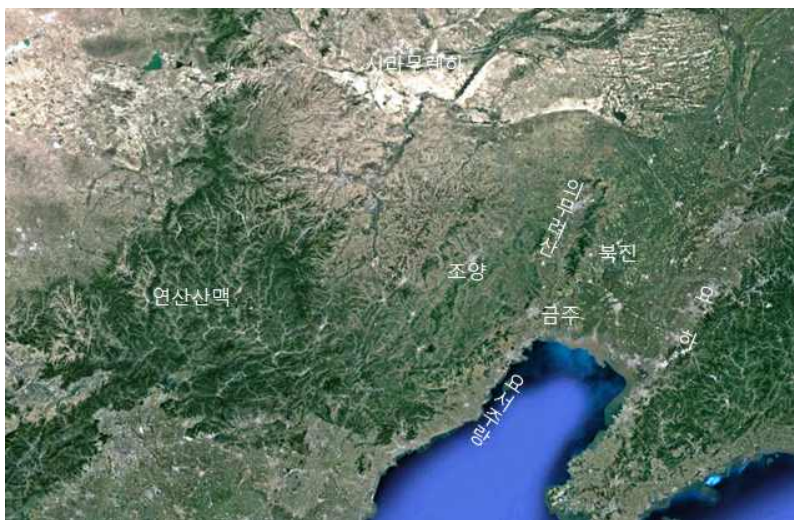
3)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59쪽.

Ⅱ. 遼西의 공간적 모습

1. 中原과의 교통이 불편한 공간

본고에서 다룰 요서의 공간적 범위는 동쪽으로 遼河, 서북쪽으로 西拉木倫河, 서쪽으로 燕山山脈과 灤河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중국 遼寧省 서쪽 일부와 내몽골자치구 남부 일대에 걸쳐 있다(지도 참조).⁴⁾ 서쪽에 위치한 연산산맥은 太行山脈의 지류로서, 서쪽 八達嶺(洋河)에서 동쪽 山海關까지 이어져 중국 河北省 북부를 가로지르고 있다. 해발은 주봉인 霧靈山이 2,116m이지만, 대체로 600-1,500m 사이이다. 그리고 동서 길이가 약 420km, 남북 길이가 최대 200km에 이르면서 남북의 교통을 차단하는 중요 장애물이 되었다.⁵⁾

〈지도〉 요서의 주요 지형 및 지명



4) 윤병모,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경인문화사, 2011, 15쪽 ; 이정빈, 앞의 책, 12~13쪽.
5)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2, 13쪽.

전술하였듯이 연산산맥이 남북의 교통을 차단함에 따라 中原에서 요서로 가는 주요 통로로 遼西走廊이 이용되었다. 요서주랑은 서쪽으로는 산간지대, 동쪽으로는 遼東灣을 끼고 있는 길이 약 185km, 너비 8-15km의 도로로서, 서남-동북 방향으로 요령성 錦州市와 하북성의 산해관을 잇고 있다. 그런데 요서주랑이 항상 교통을 허락하였던 도로는 아니었다.

A. 이 때는 마침 여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해변은 진흙탕이 되면서 막히어 통하지 않았다. 적(오환)은 또한 좁은 셋길을 차단하며 지키고 있었으므로, (조조의) 군대는 나아갈 수 없었다. 태조(조조)는 걱정하면서 (田疇)에게 물으니 (진)주가 말하기를 “이 길은 여름과 겨울에 항상 물이 있고, 알아도 수레와 말이 통과할 수 없으며, 깊어도 배가 운항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어려움이 되었습니다.”(『三國志』 권11 魏書11 田疇).⁶⁾

기사 A에는 207년 曹操가 袁紹의 후계자였던 袁尙을 후원하고 幽州를 공격하면서 위협세력으로 떠오른 烏桓을 정벌하기 위해 오환의 근거지인 요서의 柳城(지금의 朝陽)으로 진군하는 중에 田疇라는 인물에게 진군로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담겨져 있다. 진주는 조조에게 요서주랑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나 가을에는 빗물에 침수되어 진흙탕이 되고, 이에 따라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조조는 요서주랑을 이용하지 않고, 진주가 알려준 오래 전에 끊어진 길을 통해 盧龍 방면으로 나아간 후 유성으로 진군하였고, 오환을 이끌었던 蹋頓을 사로잡음으로써 오환을 궤멸시킬 수 있었다.

요서주랑 혹은 좁은 셋길을 따라 연산산맥을 통과하면 陰山山脈의 지류로, 요령성 阜新에서 錦州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최고 해발 866m의 醫無閭山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의무려산을 넘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遼澤과 조우하게 된다. 요택은 『隋書』에 처음 등장하는데,⁷⁾ 고구려

6) 時方夏水雨，而濱海灣下，滯滯不通，虜亦遮守蹊要，軍不得進。太祖患之，以問疇。疇曰：“此道，秋夏每常有水，淺不通車馬，深不載舟船，爲難久矣。”(『三國志』 권11 魏書11 田疇).

- 수 전쟁⁸⁾ 혹은 고구려 - 당 전쟁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B-①. (貞觀) 18년(644), (당은)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군대를 돌려 遼澤에 이르렀는데, 동서 200여 리가 진창이어서 人馬가 통과할 수 없었다. (閻)立德이 길을 메워 다리를 만들었다(『舊唐書』 권77 列傳27 閻立德).⁹⁾

B-②. 『高驪記』에서 전하기를 그 강(요하)은 넓이가 100여 步이고, 잔잔하게 흐르며 맑고 깊다. 또한 물굽이, 물웅덩이, 지류가 많다. 양 안에는 긴 버들이 나 있어 집을 숨기고 兵馬를 감출 수 있다. 양 가장자리에 멀리 보이는데, 모두 요택이라 불린다. 가느다란 풀, 역새가 많이 나 있고, 온갖 짐승들이 산다.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는데, 잠깐 동안에 걷힌다. 모양이 樓雉와 같은데, 소위 『漢書』에서 일컫는 신기루가 이것이다(『翰苑』 蕃夷部 高麗).¹⁰⁾

B-③. 심양에서 요하까지 100여 리가 모두 진흙 웅덩이여서 車馬가 다닐 수 없었다(『扈從東巡日錄』 上).¹¹⁾

기사 B-①에는 644년 고구려-당 전쟁 때 당군이 고구려 원정으로 상에 있던 요택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담겨져 있는데, 요택이 100여 km의 진흙이 질퍽거리는 늪지대로, 군대가 임의적으로 길과 다리를 메워야 진군할

-
- 7) 既而一討渾庭，三駕遼澤，天子親伐，師兵大舉，飛糧輓秣，水陸交至(『隋書』 권24 志19 食貨).
 - 8) 帝次遼澤，詔曰“頃者隋師渡遼，時非天贊，從軍士卒，骸骨相望，遍於原野，良可哀歎。掩骼之義，誠爲先典，其令並收瘞之。”(『舊唐書』 권199 列傳149上 高麗).
 - 9) 十八年，從征高麗，及師旅至遼澤，東西二百餘裡泥淖，人馬不通。立德填道造橋，兵無留礙，太宗甚悅(『舊唐書』 권77 列傳27 閻立德).
 - 10) 高驪記云，其水闊百餘步，平流清深。又多灣潭枝派。兩岸生長柳，家密可藏兵馬。兩畔彌[望]，總名遼澤。多生細草萑蒲，毛群羽族。朝夕相霧，須臾卷斂。狀若樓雉，卽漢書所謂蜃氣是(『翰苑』 蕃夷部 高麗).
 - 11) 瀋陽至遼河百餘裏間地，皆葑泥窪下不受車馬(『扈從東巡日錄』 上).

수 있을 만큼 왕래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기사 B-②는 『翰苑』에 인용된 『高驪記』의 내용으로 요택의 자연 환경이 담겨 있는데, 역새를 포함한 수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짐승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대로 묘사하고 있다. 기사 B-①과 ②를 종합해보면, 요택은 수초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짐승들이 서식하고 있는 광활한 늪지대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요택의 위치에 대해서는 北鎮, 黑山, 臣民 남부, 遼中과 臺安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 그런데 요택은 수당대뿐만 아니라, 淸대까지도 존재하였고 동쪽으로 더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기사 B-③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 B-③은 청대 高士奇란 인물이 康熙帝(재위 1661~1722)를 따라 北京에서 瀋陽으로 가면서 남긴 기록 가운데 하나로, 심양 서쪽까지 진흙 웅덩이여서 거마가 다닐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산산맥과 의무려산 그리고 늪지대인 요택 등으로 인해, 요서는 중원과의 교통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종족의 거주 공간

요서는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西遼河 일대에 저습지대와 초원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등¹³⁾ 초원과 삼림이 상당한 지역에 걸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농경생활을 영위하던 漢族에게는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 분포에 있어서 한족 보다는 유목·수렵 사회를 이루는 제종족이 더 많이 거주하였다.¹⁴⁾

12) 윤순옥·김효산·지아지엔·창북기대·황상일, 「중국 요하 하류부 고대 요택의 공간 분포와 Holocene 중기 이후 해안선의 변화」, 『한국지형학회지』24, 한국지형학회, 2017, 57쪽.

13) 이기동, 「高句麗의 勢力圈 遼東에 對한 地政學的 考察」,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295쪽.

14) 윤휘탁,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그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13쪽.

우선 기원전 8-3세기 사이에는 山戎과 東胡가 거주하였다. 산융은 계곡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목축과 약탈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燕을 침략하였다가 기원전 663년에 연의 구원 요청을 받은 齊의 공격을 받으면서 요서에서 쫓겨났다.¹⁵⁾ 이후 요서에서 동호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戰國時代에 비교적 큰 연맹을 형성하였지만, 기원전 3세기 후반 연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라무렌하 유역 이북으로 쫓겨났다.¹⁶⁾

기원전 3세기 초반 경부터는 烏桓과 鮮卑 등이 주로 거주하였다. 오환과 선비는 언어와 풍습이 같은 동호의 후예이다. 기원전 206년 동호가 흉노에 의해 궤멸된 후 남은 무리가 각각 烏桓山과 鮮卑山에 도망갔는데, 산 이름을 따서 종족명이 붙여졌다.¹⁷⁾ 오환은 後漢의 정치적 상황에 깊숙히 관여하다가 전술하였듯이 207년 조조의 공격을 받고 궤멸하였다.

선비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후한 桓帝 연간(146-167)에 檀石槐에 의해 일시 통합되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분열되었는데, 특히 慕容部는 유주와 平州 사이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大陵河지역까지 진출하였다.¹⁸⁾

중국대륙에 제종족이 대거 진출했던 5호16국 시기에는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宇文部, 난하지역에서 段部和 羯族인 石勒 세력 등이 봉기하였다. 한편 모용부의 慕容皝은 337년에 前燕을 세웠고, 341년에는 東晉으로부터 요서 및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음으로써¹⁹⁾ 요서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군림하였다.

그런데 전연은 권력 투쟁 및 지배집단의 부패로 인한 국고의 고갈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였고,²⁰⁾ 결국 370년 前秦에 의해 멸망하였다. 그리고 전

15)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81-83쪽.

16) 송호정, 앞의 책, 302-303쪽.

17) 『後漢書』권90 列傳80 烏桓鮮卑列傳.

18) 공석구,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정책과 모용씨」, 『軍史』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44쪽.

19) 『資治通鑑』 권96 晋成帝 咸康 7년.

진은 동진 원정에 나섰다. 383년 淝水 전투에서 패하면서 쇠락하게 되는데, 이 때 모용황의 5번째 아들로 진진에 내부해 있던 慕容垂가 반기를 들었다. 모용수는 유주와 평주를 공격하는 등 요서를 장악하며,²¹⁾ 결국 386년에는 후연을 세웠다.

후연은 394년에 拓拔部가 세운 北魏와 參合芽에서 전투를 벌이다 패배하면서 쇠퇴하였다. 그리고 慕容熙가 학정으로 인해 민심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407년 馮跋이 모용희를 살해하고 慕容雲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후연은 멸망하고 北燕이 세워졌다. 북연은 436년 북위가 침략하는 상황 속에서 馮弘이 수도인 龍城(현재 조양)을 버리고 고구려로 망명하면서 멸망하였다.²²⁾ 반면 북위는 夏, 北涼 등을 멸망시키며 회복을 통일함으로써 5호 16국시기를 종식시켰다.

한편 위와 같이 선비 계통의 모용부와 탁발부가 세운 국가들이 요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 요하 상류와 시라무렌하 유역에는 우문부의 후예로 알려진²³⁾ 거란, 거란의 동쪽에는 奚, 거란 북쪽 嫩江과 黑龍江 주변에는 室韋,²⁴⁾ 실위의 서쪽 大興安嶺山脈 남면 일대에는 地豆于,²⁵⁾ 松花江 유역을 중심으로 말갈 등이 거주·활동하였다. 그런데 일부 종족은 거란이 8부, 실위가 5부, 말갈이 7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종족 안에서도 분열되어 국제 정세 및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요서에는 전국시기 연에 의해 처음 郡이 설치되었고,²⁶⁾ 진한시기 이래에도 군현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중원과의 교통이 불편하였

20) 강선, 「4-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軍史』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9쪽.

21) 공석구, 앞의 논문, 60쪽.

22) 『資治通鑑』 권96 宋文帝 元嘉 13년 4-5월.

23) 『魏書』 권100 列傳88 契丹.

24)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2004, 409쪽.

25) 박원길, 「고구려와 柔然突厥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14, 고구려연구회, 2002, 14쪽.

26) 『史記』 권10 匈奴列傳.

고, 제종족이 대거 거주함에 따라 중원왕조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요서는 중원왕조로부터 격리된 공간이자, 소외된 공간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²⁷⁾

Ⅲ. 遼西를 둘러싼 제세력의 동향

1. 고구려와 돌궐 간 갈등

전술하였듯이 요서는 중원왕조로부터 격리된 그리고 소외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6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제세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5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남북조, 북아시아 초원의 柔然, 그리고 동방의 고구려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6세기 중반에 이르러 북중국에서는 534년에 북위가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었고, 550년에는 北齊, 557년에는 北周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남중국에서는 556년에 梁을 대신해서 陳이 성립되었다. 또한 북아시아 초원에서는 552년에 유연이 쇠퇴하고 突厥이 대두되었다. 그러다가 북제를 무너뜨린 북주의 내부 다툼 속에서 581년 수가 성립하였고, 589년에는 수가 중국대륙을 통일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 질서의 변동, 그리고 국제 정세 및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요서 제종족의 행보가 맞물려서 요서가 동아시아의 요지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요서의 급격한 변동은 552년 돌궐에 의한 유연의 멸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연 멸망 후 유연의 잔여세력이 요하 상류의 거란을 압박하고 거란 일부가 북제의 변경을 침범하는 상황 속에서 553년 북제는 대규모 거란 원정에 나섰는데, 文宣帝는 10만 여명의 포로와 가축 수십만 마리를 노획

27) 권오중, 앞의 책, 13-14쪽.

하였고, 요서의 昌黎城과 營州를 순시하였다. 또한 潘相樂은 靑山에서 거란 別部를 대파한 후 포로를 여러 주에 분산·배치시켰다.²⁸⁾ 거란 원정을 계기로 북제가 요서 일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북주 및 돌궐과의 대결로 인하여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다.²⁹⁾

북제에 이어 6세기 중반 요서에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은 돌궐이었다. 돌궐은 원래 유연에 복속된 세력으로 철 제련에 종사하면서 金山, 즉 알타이산맥을 중심으로 융거하고 있었는데, 鐵勒를 격파하고 552년에는 유연마저 멸망시키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되었다.³⁰⁾

돌궐은 유연의 잔여세력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漠南 원정에 나서게 된다. 이 때 유연의 잔여세력을 옹호하였던 북제와 부딪치게 된다. 돌궐과의 충돌 과정에서 돌궐의 강성함을 목도한 문선제는 장성을 축조함으로써 그들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³¹⁾

북조는 돌궐에 대해 대체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유연의 잔여세력이었던 鄧叔子가 서위로 도망갔을 때 서위는 돌궐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를 건내준 바 있고, 북제와 북주는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돌궐에 혼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 돌궐을 원군으로 삼고자 노력했는데, 이와 같이 북제와 북주의 행보에 대해 무칸카간(木汗可汗, 553~572)은 “남쪽에 있는 두 명의 아이들이 孝順하니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희롱하기까지 하였다.³²⁾

28) 九月, 契丹犯塞. 壬午, 帝北巡冀定幽安, 仍北討契丹. 冬十月 丁酉, 帝至平州, 遂從西道趣長塹. 詔司徒潘相樂率精騎五千自東道趣靑山. 辛丑, 至白狼城. 壬寅, 經昌黎城. …… 甲辰, 帝親踰山嶺, 爲士卒先, 指麾奮擊, 大破之, 虜獲十萬餘口雜畜數十萬頭. 樂又於靑山大破契丹別部. 所虜生口皆分置諸州. 是行也, 帝露頭袒膊, 晝夜不息, 行千餘里, 唯食肉飲水, 壯氣彌厲. 丁未, 至營州. 『北齊書』 권4 帝紀4 文宣帝.

29) 노태돈, 앞의 책, 405-408쪽.

30) 『周書』 권50 列傳42 突厥.

31) 이재성,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충돌」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91-102쪽.

32) 『周書』 권50 列傳42 突厥.

북주가 북제를 무너뜨려 북중국을 통일했을 때에도 돌궐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579년 북제를 도왔던 돌궐의 화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타스파르카칸(他鉢可汗, 572-581)에게 千金公主를 시집보내기까지 하였다. 북중국 국가의 돌궐에 대한 수세적인 모습은 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돌궐은 북제와 충돌 속에서 막남을 점령하였고, 이후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요서였다. 돌궐의 요서 진출은 무칸가간 재위기인 553~572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동으로 거란을 쫓아내고, 그 땅이 遼海 이서에 이르렀다’³³⁾고 하였듯이 거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실위를 복속시키면서 피지배 종족을 통제하는 吐屯 셋을 두었고,³⁴⁾ 庫莫奚마저 복속시켰다.³⁵⁾ 이와 같이 돌궐이 요서로 진출함에 따라 결국 돌궐과 고구려는 마주하게 된다.

C. (양원왕) 7년(551) 가을 9월 돌궐이 와서 新城을 포위하였다. (돌궐이 신성에서) 이기지 못하자, 이동하여 白巖城을 공격하였다. 왕이 장군 高紇을 보내 병사 만 명을 거느리게 하게 그들을 막게 하였는데, 천여 급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년 9월조).³⁶⁾

기사 C는 고구려와 돌궐의 최초 조우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三國史記』에만 있고 중국 사서에는 보이지 않은 고구려의 독자전승 기록이다. 이 기사에서는 돌궐이 551년에 고구려의 新城과 白巖城을 공격하다가 패

33) 東走契丹, …… 其地東自遼海以西(『周書』 권50 列傳42 突厥).

34) 『北史』 권94 列傳82 室韋.

35) 『周書』 권49 列傳41 庫莫奚. 557-562년 북제와 거란, 실위, 고막해 등 제종족 간의 사신 교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돌궐의 요서 진출과 관련짓기도 한다(김진한,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요해지역의 동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231쪽).

36) 七年,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년 9월조).

배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고구려와 돌궐이 충돌하였다는 신성과 백암성은 대체로 각각 중국 요령성 撫順의 高爾山城, 燈塔의 백암성(중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燕州城)으로 비정되고 있다. 양 세력 간의 첫 충돌은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요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기사의 기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견해가 있다. 돌궐이 유연으로부터 독립한 시기가 552년이고, 돌궐이 요서로 진출한 시기가 555-557년이기 때문에 551년에 돌궐과 고구려가 충돌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빨라야 555년 이후라는 것이다.³⁷⁾ 돌궐은 550년 철록을 무너뜨리고 551년에는 서위와 혼인 관계를 맺는 등 551년 이전에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⁸⁾ 그리고 552년에는 돌궐에 의해 유연이 무너지면서 유연의 영향력이 미쳤던 요서 일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유목민으로서 기동력이 우수한 돌궐이 요서를 통과하여 고구려 서북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³⁹⁾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꼭 555년 이후에 돌궐과 고구려가 전투를 벌였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즉 551년 혹은 이와 가까운 시기에 양세력 간 전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⁰⁾

그렇다면 550년대 초반에 돌궐은 왜 고구려를 공격하였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돌궐과 고구려 간의 갈등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D. (天保 5년-554년) 5월 정미, (북제가) 북쪽으로 茹茹(유연)를 쳐서 그들을 대파하였다. 6월 여여가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옮겨 장차 남쪽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황제(문선제)가 경기병을 이끌고 金山 아래에서 그들

37) 이재성, 앞의 논문, 115쪽 ; 임기환, 앞의 논문, 59-60쪽 각주 20).

38) 『周書』 권50 列傳42 突厥.

39) 강선, 앞의 논문, 98쪽.

40) 551년이라는 기년을 인정하면서 고구려 성을 공격한 주체에 대해서 철록을 기습한 돌궐 기병이었다는 견해가 있다(박원길, 앞의 논문, 22쪽).

을 격파하니, 여여가 이를 듣고 멀리 도망쳤다(『北齊書』 권4 帝紀4 文宣帝 天保 5년).⁴¹⁾

기사 D에는 554년 북제의 문신제가 유연을 공격하였고, 북제에 패한 유연 잔여세력이 동쪽으로 가서 재정비하려고 했던 상황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유연이 가려고 했던 동쪽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동로마의 시모카타(Theophiractt Simocatta)가 남긴 기록이 주목된다. 시모카타는 “유연의 잔여세력이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북제의 공격으로 동쪽의 Moukri로 도망갔다”고 기록한 바 있는데,⁴²⁾ ‘Moukri’는 맥구려, 즉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³⁾ 만약에 Moukri가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유연의 잔여세력은 고구려로 들어가서 훗날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시모카타의 기록을 감안한다면, 기사 D에서 유연의 잔여세력이 가고자 한 동쪽 또한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유연과 고구려는 472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⁴⁴⁾ 479년에는 ‘북위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지두우 분할을 모의하는 등⁴⁵⁾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우호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돌궐에 의해 멸망한 유연의 잔여세력을 받아주었고, 아울러 이들 세력을 통해 돌궐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구려는 돌궐에 의해 멸망한 유연의 잔여세력을 받아줌으로써 돌궐과의 갈등 요소를 제공한 것이다. 고구려의 유연 잔여세력 수용은 돌궐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돌궐은 고구려의 본토인 요동을 공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구려와 돌궐은 유연 잔여세력을 두고 처음부터 대립하였다.

41) 五月, 丁未, 北討茹茹, 大破之. 六月, 茹茹率部衆東徙, 將南侵. 帝率輕騎於金山下邀擊之, 茹茹聞而遠遁(『北齊書』 권4 帝紀4 文宣帝 天保 5년).

42) 노태돈, 앞의 책, 406쪽.

43) 노태돈, 같은 책, 407쪽.

44) 延興二年, 其王餘慶始遣使上表曰, …… 且高麗不義, 外慕隗器藩卑之辭, 內懷兇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魏書』 권100 列傳88 百濟).

45)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於以分之(『魏書』 권100 列傳88 契丹).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E. 지나간 해(往年)에 利稽察이 고구려·말갈에 의해 크게 패하였다
(『隋書』 권84 列傳49 突厥).⁴⁶⁾

기사 E는 돌궐과 高寶寧 세력이 연합하여 581년-582년에 수를 공격하자, 이에 격분한 隋文帝가 583년 돌궐 토벌에 나서면서 내린 조서 내용의 일부인데, 고구려·말갈과 돌궐의 利稽察 사이에 충돌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서는 충돌 시기에 대해서 지나간 해(往年)라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충돌 시기에 대해서 563-577년,⁴⁷⁾ 570년대-580년대 전반,⁴⁸⁾ 581-582년⁴⁹⁾ 등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조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돌궐 간 충돌은 수가 돌궐과 주변 제세력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시한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고구려와 돌궐의 대립 관계가 조서가 반포된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서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최소한 조서가 반포된 580년대 초까지 여전히 대립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돌궐은 왜 계속해서 대립할 수 밖에 없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요서에 거주하고 있던 제종족이 주목된다. 요서의 제종족 가운데 거란과 관련하여, 고구려는 378년 小獸林王 8년 9월에 거란이 북변을 침범함으로써 첫 접촉한 이래,⁵⁰⁾ 395년 광개토대왕이 鹽水(시라무렌하)에 거주

46) 往年利稽察大爲高麗靺鞨所破(『隋書』 권84 列傳49 突厥).

47) 김진한, 앞의 논문, 307쪽.

48) 이정빈,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 역사논총』44, 동북아역사재단, 2014, 307쪽 ; 전상우, 「突厥高寶寧의 흥기와 高句麗의 대응」, 『사학지』55, 단국사학회, 2017, 8쪽.

49) 이재성, 앞의 논문, 129쪽.

50) 秋九月, 契丹犯北邊, 陷八部落(『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8년 9월).

하고 있던 거란(靺鞨)을 공격하여 거란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구려인 1만 명, 거란인 500명, 많은 수의 말, 소, 양 등을 노획한 바 있었고,⁵¹⁾ 479년 지두우를 두고 유연과 분할 지배하려는 의도 속에서 거란을 공격하는 등, 일부 거란 세력을 자국의 세력 범위 하에 포섭하고 요서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돌궐이 막남 원정 후 유연의 세력 범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란 세력⁵²⁾을 복속시키면서 요서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⁵³⁾ 우호관계에 있었던 유연을 무너뜨리고 유연의 영향력 하에 있던 거란을 복속시키며 요서로의 진출을 시도하던 돌궐의 행보에 대해서, 요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돌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 거란을 공략하였을 때 이를 피해 도망 온 거란 만 가를 고구려가 받아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고구려의 행보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⁵⁴⁾

제종족을 둘러싼 양 세력의 대립은 실위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돌궐이 실위에 토둔을 두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가 군사 무기 제작에 매우 중요한 철을 실위에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였는데,⁵⁵⁾ 고구려가 실위에 제공한 철은 실위에서의 돌궐 영향력이 약화되기를 바라는 의도 속에서 보낸 지원품이라고 여겨진다.

위와 같이 고구려와 돌궐은 유연의 잔여세력을 두고 충돌한 이래, 요서의 제종족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음으로써, 550년대 초부터 580년대 까지 대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51)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靺鞨不□□人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破其三部落六七百營牛馬群<廣開土大王陵碑>：九月，北伐契丹，虜男女五百口。又招諡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52) 이정민, 앞의 책, 33쪽.

53) 『周書』 권50 列傳42 突厥.

54) 김진한, 앞의 논문, 233쪽.

55) 이성제,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155쪽, 각주 42).

56) 고구려와 돌궐의 제종족을 둘러싼 대립은 말갈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계속 이어졌다. 6세기 중엽 이후 물길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北松花江 유역에 거주하던 粟末靺鞨이 두

2. 高寶寧 세력의 대두와 제세력 간 관계

요서의 제종족을 두고 돌궐과 고구려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577년 1월 북주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북중국을 통일하며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가 또 다시 급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북제의 營州刺史 고보령이 북주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⁷⁾ 영주에 고보령이라는 독자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보령은 577년 12월에 문선제의 셋째 아들인 高紹義에게 표문을 올려 황제로 추대하고 그로부터 丞相을 임명받으면서 북제의 부흥을 주도하였는데,⁵⁸⁾ 당시 고소의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돌궐이었다. 고소의는 577년 2월 馬邑에서 宇文神舉가 이끄는 북주군과 싸우다 패배한 후 돌궐로 도망쳤는데,⁵⁹⁾ 돌궐이 고소의의 내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돌궐은 고소의의 내부만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F. (太建 10년-578) 윤월 …… 신사일 …… (북)제의 齊範陽王 (고)소의는 (북)주 고조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하늘의 도움으로 여겼다. 幽州人 盧昌期는 範陽에서 거병하여 머물면서 (고)소의를 맞이하고자 하였는데, (고)소의는 돌궐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나아갔다. (북)주에서는 柱國東平公 (우문)신거를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노(창기)를 치고자 하였다. …… 마침 (우문)신거가 범양에서 이기고, (노)창기를 사로잡았다. (고)소의는 이를 듣고 흰 옷을 입고 슬퍼하며 돌궐로 돌아갔다. 고보령은 夷夏 수만 기를 거느리고 범양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潞水에 이르러 (노)창기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돌아와 和龍에 웅거하였다(『資治通鑑』 권173 陳宣帝 太建 10년 윤월).⁶⁰⁾

각을 나타냈는데, 이 때 돌궐은 속말말갈을 지원하여 고구려 변경을 침입케 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조공무르도 제공하였다(임기환, 앞의 논문, 60쪽).

57) 『資治通鑑』 권173 陳宣帝 太建 9년 2월.

58) 『資治通鑑』 권173 陳宣帝 太建 9년 12월.

59) 『資治通鑑』 권173 陳宣帝 太建 9년 2월.

60) 閏月, …… 辛巳, …… 齊範陽王紹義聞周高祖殂, 以爲得天助. 幽州人盧昌期, 起兵據範

기사 F에는 578년 북주부흥세력이었던 盧昌期가 북주 武帝의 죽음을 틈 타 範陽에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당시 고소와의 고보령의 동향이 담겨져 있다. 고소와는 노창기가 북주의 공격을 받게 되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고자 하였는데, 돌궐 군사를 대동하였다. 돌궐은 고소에게 군사적인 원조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돌궐은 고소와의 내부를 허락하였고,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고보령은 고소에게 황제로 추대하면서 함께 북제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그렇다면 돌궐과 고보령은 고소에게 매개로 동맹관계를 맺고 반북주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와의 고보령으로 대표되는 북제 부흥세력과 돌궐이 연합을 맺고 북주와 대립하고 있었을 때 고구려는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까. 이와 관련해서 기사 G가 주목되었다.

G. 이 때 後周의 무제가 군대를 보내 요동을 정벌하였다. (평원)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肄山 들판에서 맞이하여 싸웠다. 溫達이 선봉이 되었는데, 치열하게 싸워 수십여 급을 베었다. 여러 군이 승기를 타고 분발하여 공격하면서 (고구려군이) 크게 이겼다(『三國史記』 권45 列傳5 溫達).⁶¹⁾

기사 G에는 肄山 들판에서 벌어진 後周와 고구려군 간 전투 상황이 담겨져 있는데, 장군 溫達이 선봉이 되어 크게 활약하면서 고구려군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사 G에 대해 후주를 북주로 보면서, 무제가 죽기 전인 577년 혹은 578년 북주와 고보령 세력 간의 전투 속에 온달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고보령 세력의 편에 서서 원조한 상황으로 이

陽, 迎紹義, 紹義引突厥兵赴之. 周遣柱國東平公神舉將兵討昌期. …… 會神舉克範陽, 擒昌期. 紹義聞之, 素衣舉哀, 還入突厥. 高寶寧帥夷·夏數萬騎救範陽, 至潞水, 聞昌期死, 還, 據和龍(『資治通鑑』 권173 陳宣帝 太建 10년 윤월).

61) 時後周武帝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肄山之野.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奮擊大克(『三國史記』 권45 列傳5 溫達).

해되어 왔다. 고구려도 반복주세력으로서 고보령 세력, 돌궐과 연합을 맺었다는 것이다.⁶²⁾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기사 G에서의 고구려군 전투 대상이 북주가 아닌 고보령 세력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⁶³⁾

사실 고구려가 반복주세력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577년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켰을 때 고구려 평원왕은 북주에 축하사신을 보냈는데, 북주의 무제는 평원왕에게 ‘開府儀同三司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이라는 책봉호를 내렸다.⁶⁴⁾ 이후 고구려는 581년 수가 건국되었을 때에도 축하사신을 보냈는데, 수 무제는 평원왕에게 ‘大將軍 遼東郡公 高麗王’이라는 책봉호를 내렸다.⁶⁵⁾

평원왕이 577년에 받은 ‘개부의동삼사’는 4위, 581년에 받은 ‘대장군’은 3위에 해당하는 勳官이다. 즉, 581년에 받은 책봉호가 577년에 받은 책봉호보다 높은 것이다. 한편 581년에 고구려가 받은 책봉호는 동아시아의 제세력 가운데 가장 상위에 해당했다. 만약에 고구려가 고보령 세력 및 돌궐과 연합하여 반복주세력을 형성하고 기사 G에서처럼 577년 혹은 578년에 북주와 전투를 벌였다면, 581년에 북주를 계승한 수로부터 상위의 책봉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사 G만 제외한다면 고구려와 북주·수는 58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⁶⁶⁾

또한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을지도 의문이 든다. 6세기 중

62) 韓昇,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堀敏一先生古稀紀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1995, 355~356쪽; 王小甫 외,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2003. 遼西에서 활동하는 북제 부흥군을 계기로 고구려와 돌궐 양국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갔다는 견해가 있다(김진한, 앞의 논문, 240쪽).

63) 여호규는 高保寧 세력일 가능성이만 상정하였지만(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23쪽, 각주 81), 이정빈은 구체적인 논증을 시도하였다(이정빈, 앞의 책, 58-64쪽).

64) 『周書』 권49 列傳41 高麗.

65) 『周書』 권49 列傳41 高麗.

66) 여호규, 앞의 논문, 5쪽.

반부터 수가 중국대륙을 통일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은 돌궐이었고, 그 다음은 북주, 고보령 세력 순이었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고구려는 유연의 잔여세력과 요서 제종족을 두고 이미 돌궐과 충돌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양 세력 간의 대립관계로 볼 때 고구려와 돌궐이 연합을 맺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구려가 고보령 세력과 동맹을 맺은 돌궐과 연합하여 북주를 견제한다면, 대립관계에 있었던 돌궐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주 입장에서 보면 북중국 통일 후 돌궐과 고보령 세력을 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변경을 잇닿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은 고구려와 대립할 필요가 없었다.

위와 같은 당시 고구려와 북주 및 돌궐의 관계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보면, 기사 G에서의 고구려군 전투대상은 북주가 아닌 고보령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보령 세력이 고구려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돌궐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만큼, 고구려가 고보령 세력을 적대시하였고,⁶⁷⁾ 이와 같은 적대관계 속에서 고구려와 고보령이 전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581년 수로부터 받은 고구려 평원왕의 책봉호가 577년 북주로부터 받은 책봉호보다 높았던 것은 고구려가 고보령 세력을 공격하는 등 북주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고구려는 고보령 세력이 돌궐과 연합을 맺고 있었던 점 이외에도, 고보령 세력과 대립할 여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사가 주목되었다.

H (고보령은) (북)제에 있어 오랜 동안 黃龍을 지켰다. (북)제가 멸망하자, (북)주 무제가 영주자사로 삼았고, 華夷의 마음을 깊게 얻었다(『隋書』 권39 列傳4 陰壽).⁶⁸⁾

67) 전상우, 앞의 논문, 10쪽.

기사 H에는 고보령이 영주자사로 임명된 후의 행적이 담겨 있는데, 취임하면서 華夷의 지지를 폭넓게 받았다고 한다. 기사에 보이는 화이에 대해서는 기사 F에 보이는 고보령이 노창기를 구원할 때 동원한 夷夏와 같은 존재로서, 거란과 말갈 등 요서의 제종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⁹⁾ 즉, 고보령이 영주자사 취임 후에 요서 제종족을 부식·포섭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고구려는 돌궐과의 경쟁 속에서 요서의 제종족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고보령 세력 또한 돌궐과 마찬가지로 요서의 제종족을 포섭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고보령의 행보에 대해 고구려는 요서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잠식할 수 있는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위와 같이 고보령 세력이 고구려와 대립관계에 있던 돌궐과 연합을 맺고 요서의 제종족을 포섭함에 따라, 고구려는 고보령 세력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대립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IV. 맺음말 - 제세력의 동향으로 본 遼西의 성격

전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요서가 동아시아의 요지로 부각되었던 6세기 중·후반 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 요서는 북중국국가와 고보령 세력, 북아시아 초원의 유목세력인 유연과 돌궐, 그리고 동쪽의 고구려 등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였던 諸國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요서 내에는 국제 정세 및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던 제종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요서를 둘러싼 제국 간의 관계를 보면 고구려와 유연이 ‘반북위’, 돌궐과

68) 在齊久鎮黃龍，及齊滅，周武帝拜爲營州刺史，甚得華夷之心(『隋書』 권39 列傳4 陰壽).

69) 이정빈, 앞의 논문, 296쪽.

고보령 세력이 ‘반북주’라는 같은 목적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은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대립의 배경에는 요서의 제종족이 있었다. 요서를 둘러싸고 있던 제국은 요서의 제종족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속에서 서로 간 혹은 제종족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였다. 그리고 제종족 간에도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⁷⁰⁾ 즉 요서는 제국과 제국, 제국과 제종족, 그리고 제종족과 제종족 간 대립과 충돌이 맞물렸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한편 요서의 성격을 살펴보면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제국이 요서의 제종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지만, 영토적인 측면에서 특히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 동쪽지역에 대해 영역화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

고구려의 경우 395년 시라무렌하 유역의 거란을 복속시켰고, 후연과의 대립 속에서 402년에 용성의 동북쪽에 있었던 宿軍城⁷¹⁾ 404년에 燕郡⁷²⁾을 공격하였다. 436년에는 북위로부터 풍흥을 구하기 위해 북연의 수도인 和龍城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479년에는 유연과 지두우 분할을 모의하면서 거란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525~528년에도 요서를 공격한 바 있다.⁷³⁾ 이와 같이 고구려가 요서에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만, 『周書』⁷⁴⁾나 『北史』⁷⁵⁾ 등의 중국사서에는 고구려의 서쪽 경계에 대해 여전히 요하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지방에 入居성이 강한 包谷式 산성을 축조하여 군사

70) 『隋書』 권84 列傳49 突厥.

71) 『資治通鑑』 권112 晉安帝 元興 1년 5월.

72) 『晉書』 권124 載記24 慕容皝.

73) 君諱暨, 字承伯, 昌黎龍城人也. …… 父詳平州司馬諮議參軍, 秉性自天□□□事, 怡然於物外, 有終焉之心, 冲漠於丘園, 得無爲之眞. 美姿容, 善談論. 言成準的行爲師表. 七閣五車, 究其義輿. 九流百氏, 洞悉淵源. 慕仲君之下帷, 愛孫敬之閉戶. 屬群飛海水, 天下亂離, 戎狄窺疆, 孝昌失馭, 高麗爲寇, 被擄遼東<韓暨 墓誌銘>.

74) 其地, 東至新羅, 西渡遼水二千里, 南接百濟, 北鄰靺鞨千餘里(『周書』 권49 列傳41 高麗).

75) 其國, 東至新羅, 西度遼二千里, 南接百濟, 北鄰靺鞨一千餘里(『北史』 권94 列傳82 高麗).

방어뿐만 아니라 지방 지배를 위한 거점으로 삼았는데,⁷⁶⁾ 이러한 고구려 포곡식 산성은 요동에서만 확인되고 요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요서에는 요하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요서 일부 및 제중족을 감시·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⁷⁷⁾ ‘邏’라고 불리는 소규모의 성곽⁷⁸⁾만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왕조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위는 479년 거란의 勿于가 무리 만 여명을 이끌고 내부하였을 때 白狼水, 즉 대릉하 동쪽에 이주시킨 바가 있는데, 물우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 기근이 들자 ‘入關’하여 교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한다.⁷⁹⁾ 북위가 물우집단을 이주시킨 대릉하 하류 동쪽을 ‘關外’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는 요서에 營州總管府를 설치하였다가 大業(605~618) 초에 遼西郡을 설치하였는데, 처음 설치되었을 때 관할한 縣은 柳城縣 단 하나뿐이었다.⁸⁰⁾ 612년에 이르러 요서군은 遼西, 懷遠, 瀘河 세 현을 관할하였는데,⁸¹⁾ 회원과 노하는 대체로 각각 중국 요령성 북진시 부근, 금주시 부근 일대로 비정된다.⁸²⁾ 그렇다면 수대 설치된 요서군의 동쪽 관할 범위는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 동쪽 인근으로 추정된다. 즉,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 동쪽-요하는 요서군의 관할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요서군에 소속된 가구 수를 보면 불과 751호였다.⁸³⁾ 그리

76) 여호규, 『고구려성』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21쪽.

77) 노태돈, 앞의 책, 411쪽 ; 이성제,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149-153쪽 ; 이정빈, 앞의 책, 18-23쪽.

78) 이정빈, 앞의 책, 22쪽.

79)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於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贊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 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自此歲常朝貢, 後告讎, 高祖矜之, 聽其入關市糴. (『魏書』 권100 列傳88 契丹).

80) 遼西郡舊置營州, 皇初置總管府, 大業初府廢, 統縣一. (『隋書』 권30 志25 地理中 遼西郡).

81) 煬帝大業八年, 爲置遼西郡, 並遼西懷遠瀘河三縣以統之. (『太平實字記』 권71 河北道20 燕州).

82) 이성제,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 『大邱史學』 113, 대구사학회, 2013, 14쪽.

83) 統縣一, 戶七百五十一. (『隋書』 권30 志25 地理中 遼西郡).

고 수는 요서에 거란의 出伏⁸⁴⁾이나 말갈의 突地稽⁸⁵⁾ 등 제종족을 대거 이주시켰다. 이러한 수의 행보 속에서 요서군에 대한 적극적인 군현지배의 지를 찾기 어렵다.

당의 사례를 살펴보면, 644년 당이 고구려 원정을 준비할 때 唐太宗은 韋挺에게 군량수송 임무를 맡기면서 “유주 이북 遼水까지 2천여 리인데, 州縣이 없어 군대가 행군할 때 물자와 군량을 취급할 곳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⁸⁶⁾ 당태종의 언급 속에서 644년 이전까지도 요서에 군현이 확고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술한 사례로 볼 때 고구려와 중국왕조 모두 요서를 적극적으로 영역화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만약에 제국이 요서를 영역화하지 않았다면, 요서는 제국이 제종족을 두고 영향력을 미쳤던 공간일 뿐, 제국간의 영역과 영역이 마주했던 공간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서는 제국 사이에 끼여 있는 공간이었다. 즉, 지정학적 위치상 요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東北平原이나 華北平原 등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제국은 굳이 요서를 영역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제국은 요서를 영역화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기존에 제기되었던 것처럼 각 제국이 서로 간 접경으로 요서라는 공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지하듯이 현재 선으로 이해되는 국경선은 영토와 일체화된 국민국가가 등장한 근대 이후의 산물이다. 즉 근대적 의미의 국경을 전근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⁸⁷⁾

제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은 지양하고, 접경공간인 요서의

84) 其後契丹別部出伏等背高麗，率衆內附，高祖納之，安置於渴奚那頡之北(『隋書』 권84 列傳49 契丹). 渴奚那頡의 북쪽은 遼西 北界로 추정된다(이정빈, 앞의 책, 84쪽).

85) 楊帝初與高麗戰，頻敗其衆，渠帥度地稽率其部來降，拜爲右光祿大夫，居之柳城，與邊人來往(『隋書』 권81 列傳46 靺鞨).

86) 幽州以北，遼水二千餘裏無州縣，軍行資糧無所取給(『舊唐書』 권77 列傳27 韋挺).

87) 박성현, 「한국 고대의 국경과 변경」, 『역사와 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19쪽.

제종족에 영향력을 미쳐 자국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요서는 제국에 있어 자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⁸⁸⁾ 한편 제국이 요서를 완충지대로 삼으려면 요서에 거주하고 있는 제종족을 복속시켜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만한 관계를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주종관계 속에서도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였는데, 제국은 군사 원조 및 일정한 공납, 제종족은 경제적 지원을 서로에게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⁸⁹⁾

이와 같이 제국과 제종족이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요서가 접경공간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서는 제집단 간의 대립·충돌과 공존이 병립하였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요서(遼西), 접경(接境), 고구려(高句麗), 중국왕조(中國王朝), 돌궐(突厥), 고보령(高寶寧)

(논문투고: 2019.11.30 / 논문심사완료: 2019.12.13 / 논문게재 확정일: 2019.12.16)

88) 이기동, 앞의 논문, 292쪽 ; 이성제,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149-150쪽 ; 이정빈, 앞의 책, 38쪽.

89) 이정빈, 앞의 책, 35-36쪽.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史記』, 『後漢書』, 『三國志』, 『魏書』, 『北齊書』, 『北史』, 『周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翰苑』, 『太平寰宇記』, 『資治通鑑』, 『扈從東巡日錄』, <廣開土大王陵碑>, <韓暨 墓誌銘>.

<단행본>

공석구,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9.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2.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2004.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여호규, 『고구려성』 II, 국방군사연구소, 1999.
윤병모,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경인문화사, 2011.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 :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주류성, 2018.
王小甫 외,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2003.

<논문>

강선, 「4~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軍史』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3~103쪽.
공석구,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정책과 모용씨」, 『軍史』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39~71쪽.
김진한,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요해지역의 동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215~252쪽.
박성현, 「한국 고대의 국경과 변경」, 『역사와 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17~25쪽.

박원길, 「고구려와 柔然突厥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14, 고구려연구회, 2002, 9-25쪽.

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02, 1-36쪽.

윤순옥·김효선·지아지엔·창·복기대·황상일, 「중국 요하 하류부 고대 요택의 공간 분포와 Holocene 중기 이후 해안선의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24, 한국지형학회, 2017, 51~62쪽.

윤휘탁,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그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이기동, 「高句麗의 勢力圈 遼東에 對한 地政學的 考察」, 『고구려연구』 21, 고구려연구회, 2005, 291~304쪽.

이성제,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 5, 고구려연구재단, 2005, 137~167쪽.

이성제,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邐」, 『大邱史學』 113, 대구사학회, 2013, 1~28쪽.

이재성,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충돌」, 『북방사논총』 5, 고구려연구재단, 2005, 79~136쪽.

이정빈,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44, 동북아역사재단, 2014, 285~314쪽.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전상우, 「突厥·高寶寧의 흥기와 高句麗의 대응」, 『사학지』 55, 단국사학회, 2017, 1~25쪽.

韓昇,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堀敏一先生古稀紀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1995.

Bibliography

<Historical Materials>

Samguksagi, *Shǐjì*, *Hòuhànshū*, *Sānguózhi*, *Wèishū*, *Běiqíshū*, *Běishǐ*, *Zhōushū*, *Súishū*, *Jiùtángshū*, *Xīntángshū*, *Hànyuàn*, *Tàipín-guányǔjì*, *Zizhitōngjiàn*, *Húcóngdōngxúnrlù*, “Guǎngkāitūdà-wánglíngbēi”, “Hánjì Mùzhīmíng”

<Monographs>

- Kong, Seokkoo, *Koguryo Yōngyōk HwakJang Sa Yōngu*, Seokyoung munhwasa, 1999.
- Kwon, Ojung, *Yodongwangguk Gwa Dongasia*, Yeungnam University Press, 2012.
- Noh, Taedon, *Koguryo Sa Yōngu*, Sakyejul, 2004.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d., *Samgukji- Jinsō Oegukjōn Yōkju*,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9.
- Song, Hojung, *Hanhuk Godaesa Sokui Gojosōnsa*, Purun Yōksa, 2003.
- Yeo, Hokyū, *Koguryo Sōng II*, Gukbang Gunsa Yōnguso, 1999.
- Yoon, Byoungmo, *Koguryo Ui Yoseo Jinchul Yōngu*, Kyungin Munhwasa, 2011.
- Lee, Jeongbin, *Koguryo-Sui Jōnjaeng : Byungyung Yoseo Eseo SiJakDoen Dongasia Daejōn*, Juluesung, 2018.
- Wáng, Xiǎofǔ ed., *Shèngtáng Shídài Yǔ Dōngběiyà zhèngjù*, Shànghǎi Cǐshū Chūbǎnshè, 2003.

<Articles>

- Kang, Su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East Asia between 4th and 6th Centuries and the Foreign Policies of Koguryo”, *Military History*, Vol. 54,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2005, pp. 73-103.
- Kong, Seokkoo, “A study on the Policy of Koguryo’s Advance into Liao-tung”, *Military History*, Vol. 54,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2005, pp. 39-71.
- Kim, Jinhan, “The Foreign Relations of Koguryo during the reign of King Peongwon - Focusing on the trend of Liao-hai -”, *Korean Studies*, Vol. 11, Korea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7, pp. 215-252.
- Park, Sunghyun, “Hankuk Godae Ui Gukkyung Gwa Byōngōng”, *YOKSA WA HYONSIL*, Vol. 82,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2011, pp. 17-25.
- Park, Wonkil, “An Analysis of the Relation of the Koguryo, Jou-Jan, Türk Nomadic Empire”, *The Koguryo Yonku*, Vol. 14, Association of Koguryo, 2002, pp. 9-25.
- Yeo, Hokyu,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out the East-Asian Regi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6th and 7th Centuries, and the Changes made inside the Goguryeo’s Policy of Foreign Affairs”, *YOKSA WA HYONSIL*, Vol. 46,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2002 pp. 1-36.
- Yoon, Soonock, Kim, Hyoseon, Jia, Jien-qing, Bok, Gidae, and Hwang, Sangill,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Ancient Liaoze in the Lower Reach of Liao River and Shoreline Change Since the Middle Holocene in China”,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Vol. 24,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2017, pp. 51-62.

- Yoon, Hwytak, “Manju nun Dongasia Aesō Ottōn Got ilkka”, *Manju, Guttang, Saram, Gurigo Yōksa*, Koguryo Research Foundation, 2005.
- Lee, Kidong, “Geo-political Aspects of Koguryo’s Liaodong Peninsula Campaigns”, *Koguryo YonKu*, Vol. 21, Koguryo Yonkuhoe, 2005 pp. 291-304.
- Lee, Seongje, “The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Khitan”, *Bunkbangsa Nonchong*, Vol. 5, Koguryo Research Foundation, 2005 pp. 137-167.
- Lee, Seongje, “Western Borderline of Koguryo and Muryeora”, *DAEGU SAHAK*, Vol. 113, Daegu Sahakkoe, 2013 pp. 79-136.
- Yi, Jaesung, “The Southward Advance of the First Turkish Empire and Its Conflict with Koguryo Dynasty in the late Sixth Century”, *Bunkbangsa Nonchong*, Vol. 5, Koguryo Research Foundation, 2005, pp. 285-314.
- Lee, Jeongb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aoxi and Koguryo’s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late 570s and the early 580s”, *Dongbuga Yeoksa Nonchong*, Vol. 44,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4, pp. 285-314.
- Lim, Kihwan, “7Syegi Dongbukasia Gukje Jilsō Ui Byōndong Gwa JōnJaeng”, *JōnJaeng Gwa Dongbukasia Ui Gukje Jilsō*, Ilchokak, 2006.
- Jeon, Sangwoo, “Goguryeo’s Response to the Rise of Turks and Gaobaoning”, *Sahakji*, Vol. 55, DanKuk Sahakhoe, 2017, pp. 1-25.
- Hán, shēng, “Zui To Koukuri No Kokusaizeijakakawarikei o megutsute”, *Hori Tosiich Sensei kokikinen chiyuugokukodai No Kuni To Minshiyuu*, Kiyuukoshiyoin, 1995.

Liaoxi as the border of East Asia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dynasty, Nomadic forces, Koguryeo —

Jung, D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iaoxi(遼西) as a border through the stauts of the Chinese dynasty, Nomadic Forces, and Koguryeo(高句麗) surrounding Liaoxi region.

The traffic between Liaoxi and the mainland China was inconvenient due to the geographical environments. As a large number of nomadic and hunting tribes lived there,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isolation and alienation from the Chinese dynasty. Since the mid-sixth century, however, the international order of Northeast Asia has changed rapidly, it has become an important place in East Asia.

In the middle of the sixth century, Liaoxi was surrounded by powerful forces that formed the international order of Northeast Asia at the time, such as Beichao(北朝), Gaobaoning(高寶寧), Turk and Koguryeo. Turk and Gaobaoning had basically confrontation relationship, except that they were allied through a common purpose of anti- Beichao. In the background of the confrontation, there were various tribes in Liaoxi. The countries surrounding Liaoxi collid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each other or with the tribes in Liaoxi in an attempt to exert more influence over the Liaoxi tribes. On the one hand, the clans in Liaoxi also collided one another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other words, Liaoxi was a space wher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were interlocked.

As mentioned before, countries surrounding Liaoxi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s on various tribes in Liaoxi,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y did not actively try to colonize Liaoxi. Then, it can be seen as a space where the force of the countries collided and intersected due to their trials to place Liaoxi under their influence. It was not the space where different realms directly collided. The reason why they did not territorialize Liaoxi is that they chose to have Liaoxi as a contact zones between them instead of border line. The countries kept each other out of direct conflict, showing their influence on the Liaoxi tribes. In this respect, Liaoxi could be seen as a buffer to ensure the security of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m established political master-subordinate relations in the process of embracing and winning the Liaoxi tribes. It seems that the countries asked for military supports and some tribute, while the tribes asked for economic supports in return. It is thought that Liaoxi could be maintained as a buffer zone due to the necessity for each other, which led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hinese and the tribe. It can be seen that it was a space. This shows that Liaoxi was not only a space of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ut also co-existence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tribes.

Key Words : Liaoxi region, Contact Zones, Koguryeo, Chinese Dynasty, Khitan, Gaobaoning